

광주천, 제 2의 청계천으로

내년부터 맑은 물 매일 10만t 흘러보내 수심 2~3배 높아져...수질도 대폭 개선

광주천이 사계절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청정 도심 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6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착공한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의 핵심사업인 '하천 유지용수 처리시설'이 오는 12월 말 완공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내년 2월말까지 시험 가동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께 광주천 상류인 증심사천 합류부인 원지교(5만t), 교동교(3만t), 증심사천 속실마을(2

만t) 등에 설치된 3개 관로에서 매일 10만t의 물을 광주천에 흘려 보낸다.
 이번 사업 완료로 광주천에는 기존 방류수를 포함해 총 14만3천200t의 물이 유입됨으로써 현재 10cm 안팎인 광주천의 수심이 평균 20~30cm까지 높아지고 수질도 대폭 개선된다. 10이 오는 가로·세로 각 100m, 높이 10m인 정사각형 구조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수량이다.
 이처럼 풍부한 수량을 광주천으로 공급하는 핵심동력은 광주시 서구 광

주하수처리장에 설치된 하천 유지용수 처리시설이다. 600마력 짜리 송수 펌프 4대를 갖추고 있는 이 시설은 광주천 고수부지 12.4km 구간에 매설한 대형 송수관(지름 1m)을 통해 증심사천 원지교, 교동교, 증심사천 속실마을까지 물을 끌어올린 뒤 광주천에 다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가동된다.
 공급되는 수자원은 고도의 정화처리 과정을 거쳐 현재 광주하수처리장 원수의 수질(BOD 5ppm·3급수)을 2급수(BOD 3ppm)로 끌어올린 것

로 자연수에 가까운 물이다.
 시는 수자원 고갈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광주천의 자연 정화력을 높이는 한편, 도심에서 하수처리장을 통해 버려지는 수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공법을 택했다.
 시는 또 광주천 상·하류의 표고차가 96.5m에 달하는 지형상 특징 때문에 유실되는 수량이 많아 건천화(乾川化)가 지속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지용수 시설을 설치했다.
 시는 광주천 자연형 정화사업을 통해 하천 유지용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광주천 증류구간인 광주교~광천교(3.89km)구간 수변구역을 정비해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국제실버박람회 '침대 체험'



'2008 광주국제실버박람회'가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가운데 최준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첫번째) 등이 실버 전용 침대체험을 지켜보고 있다. 29일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일본 등 국내·외 140여개사가 참가, 노인수발 서비스, 노인용품 등 다양한 실버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李明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조성원가 주변 산단의 2~3배

"기반시설 국고 지원을"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혁신도시 인근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가격보다 2~3배나 비싸 기업 유치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를 줄일 수 있는 기반시설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한국토지공사와 혁신도시 소재 11개 광역시·도가 27~28일 양일간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개최한 '혁신도시

시 발전 및 투자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전남발전연구원 이진철 기획경영실장은 인근 산업단지와의 조성원가 비교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국고 지원 등을 주장했다.
 이 실장은 "나주 혁신도시의 조성원가는 평당 149만원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공급될 광주 평동2산단의 토지 공급가격은 절반 수준인 평당 78만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나주 미래공단지(올 12월 공급 예정)의 토지 공급가격은 평당 48만원과 42만원으로 혁신도시 조성원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나주 혁신도시는 토지 공급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연관 기업 유치를 통한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의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與 '지방 달래기'

靑, 시·도지사 간담회 한, 광역시·도 정책협

청와대와 여당이 다음달 9일께로 예정된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방 민심 달래기에 나선다.

그러나 여권이 깨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 조치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누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우선 청와대는 다음달 4일께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광역시·도지사와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내달 1일부터 사흘간 잇따라 전국 광역시도와 대규모 정책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각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 등 부단체장과 정부 측에서는 최상철 국가균형

발전위원장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참석, 지역의 현안과 정부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일에는 충청·강원지역, 2일 영·호남과 제주도, 3일 수도권 순으로 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전에 민심을 달래는 한편,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후의 지방 반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발전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 같은 간담회와 정책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이 과거에 발표한 정책들을 모은 '종합세트'에 불과하다면 지방의 반발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외국어·과학·인문 특성화반 전남 농어촌 우수고교에 운영

전남도·도교육청

전남지역 농어촌 우수고교에 특목고와 교육과정의 비슷한 '외국어·과학·인문분야 교육트랙 특성화반'이 설치된다. 또 유·초·중·고교가 한곳에 모인 세계적 수준의 '통합캠퍼스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중등 통합 기숙사' 설치와 함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비 제정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은 27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교육 여건 개선 방안' 운영 최종보고회를 갖고, 낙후된 전남지역 농어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2009~2013년)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농어촌 맞춤형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5대 정책

과제와 14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의 주요사업에는 '특성화교육 트랙 우수고 운영'과 선진국 수준의 '브랜드학교' 선정, 시·군 통합 기숙사 운영, 통합캠퍼스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5년 동안 광주 근교권과 서부권, 중남부권, 동부권 등 전남 4개 권역에 1~2곳씩을 선정해 특목고처럼 교육프로그를 운영하게 된다.
 또 도내 초등학교 20곳과 지역중심

중학교 10곳을 선정,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제반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춘 '브랜드학교'로 육성해 5년 동안 50~100억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층
 ☎062-221-4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220-5001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감사전
 호남한샘학원
 교육청: 062) 352-1111
 홈페이지: http://www.hnsam.ac.kr

YB윤도현밴드
 광주콘서트
 2008. 11. 29 SAT 7:30PM, 30 SUN 5:00PM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티켓구매: 티켓다루, 티켓링크, 옥션티켓